

■ 교회소식 ■

1. 동호회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입니다. 오후 1:30에 시작합니다.
2. 모집 : 찬양대와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3. 별세 : 이용희 권사님께서 1월 29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4. 생협 : 음성 친환경 사과즙을 주문 받습니다. (50봉 3만원)
5. 신앙실천 : 봄과 같은 미소를 자주 지어봅시다.

\* 떡과 커피 대접 : 이한림 김명희 권사

다음 주 설교 본문 요 8: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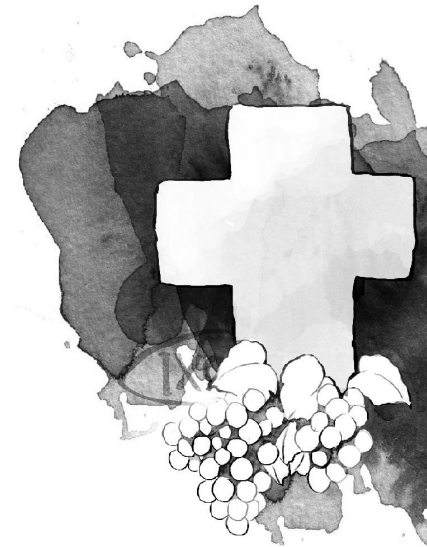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하현철 장로	추헌영 집사

	1부 영접위원	곽관희	헌금위원	권미정
2월	2부 영접위원	김인걸 박범희	김광일 한양미 권미숙 박미영	
	2부 헌금위원		한완식 백혜숙	

오늘 식당 봉사	정영선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김재영 장재영 김정훈 광상준
다음주식당봉사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이완구 김나경 홍성식 윤형석
오늘설거지봉사	아동부, 유아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6여성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희진 권사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5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입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춘이란 말을 들으니 벌써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겨울입니다. 이 냉랭한 세상에 봄을 가져오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추위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꽃을 피우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분열과 분리의 장벽이 높아만 가는 이 세상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잇속을 챙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주님처럼 대접하고 맞이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 5:8,9 ..... 인도자

▲ 교 독 문 ..... 71. 이사야 5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 다 함께

▲ 성경봉독 ..... 신 6:1-9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2부찬양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찬양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공종철 구자경 구명자 김광우 하현일 김문주 김성순 김영희 김인걸 문영혜  
김정근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김지현 김지호 김현주 김홍원 노우종 박다니엘  
박병구 박예림 방문성 박해경 방민방 준송형운 하미림 신진식 변혜정  
안종일 정현주 왕수명 유증희 이광석 이경희 이동천 이범석 류정욱 이순이  
이시경 이에서 이용일 최연실 이우원 옥귀희 이지희 임주빈 최현옥 임형욱  
장영숙 장혜정 정복순 최옥분 최윤선 최형민 최형주 한기택 홍소형 홍순복

### 감사헌금

김예준 김재흥 최희영 박미연 박병구 김인순 방경선 신진식 변혜정 안성호  
김희숙 이미혜 이상도 이범석 류정욱 이원재 염보미 이규찬 이재은 이현규  
임설희 정학성 김현숙 최윤선 최형주 한상수 남해진 한상의 정영선 무명18

### 생일감사헌금

박순섭

### 녹색꿈헌금

김지유 김용진가정 정종복 중고등부 무명2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입춘단상

바람 잔 날  
 무료히 양지쪽에 나앉아서  
 한 방울  
 두 방울  
 슬레이트 지붕을 타고 녹아내리는  
 추녀 물을 세어본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천원짜리 한 장 없이  
 용케도 겨울을 보냈구나  
 흘러가는 물방울에  
 봄이 잦아들었다

- 박형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 씬	.....	신앙인의 입춘첩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새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신앙인의 과제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깊게 새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다 함 께:	아멘. 이 땅의 냉혹함을 한탄할 뿐 나 자신이 봄이 되어 살아야 함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봄의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드러내는 이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 다른 길2

### - 아빠 한 번 나 한 번

[사진] 파키스탄.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힘찬 동작으로 벼단을 바닥에 내려치며 탈곡을 하고 있다.

마드라사에서 1등을 하다 집안이 가난해 스스로 학교를 포기한 아이가 벼 타작을 한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빠의 몸짓을 보고

금세 리듬에 맞춰 능숙하게 해낸다.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은 울 아빠예요.

제 동생들도 절 닮고 싶다고 하면 좋겠어요. 하하.”

학교를 그만뒀도 아이는 비참해하지 않는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씨익, 옛된 얼굴에 멧힌 구슬땀을 닦는다.

### - 아카족 마을의 햇살 학교

[사진] 라오스. 30여 명의 아이들이 교실 책상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다. 교실을 둘러싼 엉성한 널빤지의 틈 사이로 햇살이 비춰들고 있다.

지도에도 없는 깊은 산 속의 아카족 마을.

고운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짝을 지어 학교에 모여든다.

선생님은 아이를 등에 업은 동네 이모다.

아빠들이 짜준 나무 책상에 하나뿐인 책을 놓고

재잘재잘 웃음꽃을 피우다 공부 삼매경에 빠져든다.

누가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자 서로 어리둥절하다가

“다 잘하는데요. 이 친구는 셈을 잘하구요.

저 오빠 나무 타고 과일을 잘 따구요.

앤 물고기를 잘 잡구요. 전 노래를 잘해요.

아참, 저 이쁜 언니는 최고의 날라리래요.”

### - 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

[사진] 인디아. 한 노년의 남자가 산비탈에서 자기 키의 두 배쯤 되는 나무를 심고 있다.

인도군의 계엄령이 임시 해제된 첫날.

카슈미르는 아직 웅크려 떨고 있는데

총칼의 번득임처럼 시리기만 한 만년설 바람 속에 사과나무를 보살피는 한 남자를 만났다.

30년 동안 그는 빈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고

그중에 천 그루의 나무가 살아남았다고 한다.

“절반은 싹도 트지 않고 또 절반은 말라 죽고

그중에 소수의 나무만이 기적처럼 자라났지요.

척박한 비탈에 심어진 나무들에게 미안하고

이 엄혹한 땅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하지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이 얼어붙은 땅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카슈미르에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다.

### - 목적지가 가까워 올수록

[사진] 티벳.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원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 있다. 그 중 한 여인이 길바닥에서 절을 하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이 취하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오체투지 순례를 한다.

희박한 공기의 고원길을 오체투지로 걸어 사원에 도착한 여인이

목적지가 가까워 올수록 속도를 줄여가며 숨을 고른다.

이 길고 험한 순례길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되새기면서,

다만 그곳에 가기 위해 가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목적지임을 되새기면서.